

새 조국건설시기 문학분야에서 반동적인 사상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평론활동

김려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류문학사는 선행시대의 낡은 문학과 새시대의 진보적문학이 교체되는 력사적인 전환기마다에서 새로운 사조를 반영하는 문학운동이 일어나군 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358페이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부터 당사상전선의 앞장에서 우리 당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와 어긋나는 현상과 날카로운 투쟁을 벌림으로써 주체문학발전에 적극 기여하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새로운 사회력사적환경과 조건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을 급속히 전면적으로 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된 새 조선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우리의 문학예술을 참다운 민주주의적민족문화로 건설할데 대한 주체적인 민족문학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민주주의적민족문화건설로선은 일체의 민족문화말살정책의 모든 후과를 철저히 가시고 인민에게 복무하며 새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민주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는것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민주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 시기 문학운동에서 평론이 선도적역할을 수행하였다.

매호 잡지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과 리론을 해설선전하며 창작활동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평론들과 창작에서 나타나는 편향들을 제때에 극복하고 사회적진보와 인민대중의 건국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는 평론들이 빠짐없이 실리였다.

새 조국건설시기 문학분야에서 반동적인 사상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평론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한것이다.

당시 반동분자들은 음으로양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헐뜯으려고 책동하고있었다.

그것이 문학예술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난 실례가 평론 《서사시 〈백두산〉평》이였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시구절이나 시인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는자들의 본심은 이 시가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에 모시고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현실을 형상한것을 달가와 하지 않는데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옹호하는것은 단순히 하나의 문학작품을 지지하는데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하는것으로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부당한 평론놀음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백두산》을 옳게 평가하는 글을 하

나 잘 써서 내도록 해야 한다고, 그러자면 메마른 론설시평을 할것이 아니라 잘된 시구들을 들면서 사람들에게 납득이 가게, 그들이 진정으로 인정할수 있게 평론을 해야 한다고 시평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시평은 당보에 내도록 하고 시집을 당출판기관에서 출판할데 대한 조치까지 취해주시였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정확히 평가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작가들에게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형상하도록 이끌어준 고무적기치였으며 작품분석평가방법과 원칙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평론 《북조선문단의 새로운 수확》(1947)이 나왔다.

평론은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분석하면서 우리 문학이 위대한 수령님을 반만년 민족사가 낳은 전설적위인으로,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탁월한 령도자로 숭엄하게 형상하고있는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토로하였다.

계속하여 평론은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지금까지 문학사에서 전혀 볼수 없었던 새로운 형상세계,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대담하고 기발하게 서사시적화폭을 펼쳐나간데 대하여 평가하면서 작품의 대담성과 독창성, 혁명적열정과 기백, 극치를 이루는 구성과 언어형상 등은 조선문단의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성격의 절정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평론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암흑으로 가득찬 광야에 타오른 민족재생의 횃불, 민족의 태양이시라는것을 다시금 주장하면서 시적형상에서 달성한 사상예술적성과와 경험을 작품의 여러 형상적화폭들과 결부하여 분석평가하였다.

평론은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의거한 창작방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평론은 서사시에 관통되어있는 혁명적랑만주의적수법을 긍정하면서 이러한 수법을 리용하게 된 비결을 평가하였다. 평론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랑만주의와 사실주의를 대치시키면서 사실주의문학에는 랑만주의적수법이 허용되지 않는것처럼 생각하는것은 잘못이며 혁명적랑만주의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한 구성요소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평론은 조기천이 민족적열정에 불타는 시인이였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5천년민족사가 낳은 전설적위인으로, 세계약소민족해방운동의 위대한 전형으로 옹게 형상했다고 평가하였다.

평론은 서사시의 양상에 대하여서도 미학적으로 평가하였다.

평론은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웅장미, 장엄미에 가득차있으며 해방된 민족의 격류같은 열정이 대담하게 표현되어있다고 썼다. 지금까지 우리 문단에서 보기드문 대담웅장한 묘사 그러면서도 독자의 가슴을 치는 묘사, 격정적이고 웅장한 미와 섬세하고 치밀한 미도 많다고 그 서정적특징을 정당하게 분석하였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에 대한 시평은 평론 《조선문학에 나타난 김일성장군의 형상》(1950)에서도 진행되였다. 이 평론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시작품들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을 하면서 《김일성장군의 형상은 우리 문학에 있어서의 어떠한 형상과도 비교할수 없는 가장 광범하고 심오한 형상력, 과거의 우리 민족의 운명과 련결되었을뿐아니라 해방후의 민족적자주와 그를 위한 투쟁을 자기속에 통일시킨 그러한 거대한 형상인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운명을 자체속에 체현한 민족적영웅 그것이 김일성장군의 형상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장편서사시 《백두산》에 대한 구체적인 분

석을 주고 이 서사시를 창작한 작가의 창작자세와 창작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새 조국건설시기 문학분야에서 반동적인 사상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평론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일제사상잔재와 예술지상주의적이며 퇴폐주의적인 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것이다.

새 조국건설시기 반동적이며 이색적인 사상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평론활동에서 중요한 투쟁대상은 낡고 반동적인 일제사상잔재와 봉건적이며 부르조아퇴폐주의적경향, 《순수예술》, 《예술지상주의》였다.

대표적실례로 반동적독소가 짙은 시집 《응향》과 《문장독본》, 《예원씨클》(3집)을 들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6(1947)년 1월 원산시 문화인들과 하신 담화 《민주조선건설에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과 교시들에서 문학예술분야에서 부르조아반동사상을 극복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반동적부르조아사상이 농후한 시집 《응향》의 반동적본질에 대하여서도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예술분야에서 새 민주조선건설에 이바지할 새로운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탐구와 노력은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부르조아사상에 물젖은 사람들이며 종당에는 반동파들과 분파분자들의 리용물로 전락되고만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밖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시집 《응향》의 반동적본질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이 시기 문학예술분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사상사업과 함께 시집 《응향》을 비롯한 문학관계책들과 작품집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조직적인 대책들을 취하였다.

주체35(1946)년 10월 제2차 북조선예술총련맹전체대회에서는 당시 정세에서 무엇보다 강력히 전개해야 할것은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적무장이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강력히 추진하여야 새 조선의 위대한 현실을 파악할수 있으며 반민주주의반동사상과 견결한 투쟁을 전개할수 있다고 하였다.

대회결정서에서는 당시 정세에서 문학과 예술의 임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민주주의 완전독립국가건설을 위하여 모든 힘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모든 반동파, 반민주주의문학운동과 투쟁할데 대하여 제기하였다.

그리고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상임위원회(주체35(1946)년 10월 북조선예술총련맹은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됨)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시집 《응향》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해당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당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문학예술분야에서 나타나는 반동적이며 이색적인 사상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평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평론은 시집 《응향》의 반동성을 폭로비판하고 그 후과를 가시기 위한 문제를 제기한 평론 《문학예술은 인민에게 복무하여야 한다》(1946)이다.

이 평론은 해방후 맨 선참으로 일제의 사상잔재와 반동적문예사상을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평론은 시집 《응향》의 반동성을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문학예술은 인민에게 복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평론은 그 비판이 예리하면서도 과학적이였다.

이밖에도 평론 《문장독본의 비건설성》(1947), 《문장독본은 왜 반동적인가》(1947)가 발표되어 시집 《응향》의 반동적본질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였다.

새 조국건설시기 문학분야에서 반동적인 사상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평론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문단주의와 독단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큰 힘을 넣은것이다.

이 시기 문단주의와 독단주의는 작가들뿐아니라 평론가들에게서도 나타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7(1948)년 10월 《현시기 문학예술총동맹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문학예술분야에서 나타나고있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예술지상주의 등에 대하여 비판하시면서 특히 문단주의적경향을 극복하며 문예작품합평회와 평론사업에서도 독단주의를 철저히 극복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예작품합평회와 평론사업은 문학예술의 질적발전을 추동하며 창작가들의 예술적자질과 열정을 높여주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고 하시였다.

당시 문예작품합평회와 평론사업은 작품의 주제와 사상성에 대한 검토가 위주로 되지 못하고 기교일면에만 치중되고있었으며 작품의 긍정적측면을 살릴 방도에 대하여서는 논의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일반론을 가지고 말공부나 하면서 부족점만 끄집어내는식으로 진행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성은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첫째가는 기준이며 작품을 평가하는데서는 어디까지나 사상적내용을 위주로 하고 거기에 예술성을 결합시켜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문예작품합평과 평론에서는 작품의 긍정적측면이 비록 작은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히 찾아내어 적극 지지해주며 결합에 대하여서는 비판을 예리하게 하면서도 극복방도를 옳바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문예작품합평이나 평론에서 독단주의를 철저히 극복할데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몇몇 일군들의 주관에 의하여 작품이 평가되고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경향을 극복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문단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당시 문단에서는 장편서사시 《백두산》에 대한 새로운 시평들과 신인작가들과 작품들에 대한 평론들이 활발히 창작되였다.

평론 《북조선문단의 새로운 수확》(1947), 《현대성의 주제와 주인공》(1949), 《새시대와 문학》(1949), 《소설가 황건을 말함》(1950), 《시인 김상오를 말함》(1950) 등이 그 대표적인실례들이다.

새 조국건설시기 반동적인 사상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평론활동은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의 주제적문예사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이었다.

이처럼 새 조국건설시기 작가, 예술인들은 반동적이며 이색적인 사상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평론활동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고 주체적인 민족문화건설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였다.